

1 지원취지 및 추진방향**“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4차 공모는 긴급지원의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확대하여 운영하였던 지난 1~3차 공모에서 집행된 잔액을 놓고 어떻게 예술현장에 납득 가능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모든 단체에 100% 지원하였던 이전 공모와는 다른 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예술현장과 함께 4차 공모의 틀을 마련하고자 공모 시작 이전에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을 기관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열린정책랩을 통해 보내주신 전체적인 의견은 앞서 공지해드렸던 ‘진행사항알림⑦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진행경과 알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더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결정액을 조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공연)의 확인된 지원가능금액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지원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고문을 통해서도 안내해드렸듯이 실제 지원되는 금액의 최대 비율은 9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경감을 위한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미환불 대관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유형②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포함하였습니다. 일부 국공립 공연장에서 대관료 환불 및 면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대관계약금, 부대시설사용료, 일정변경에 대한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일부대관료가 환불 및 면제되었더라도 대관계약금, 부대시설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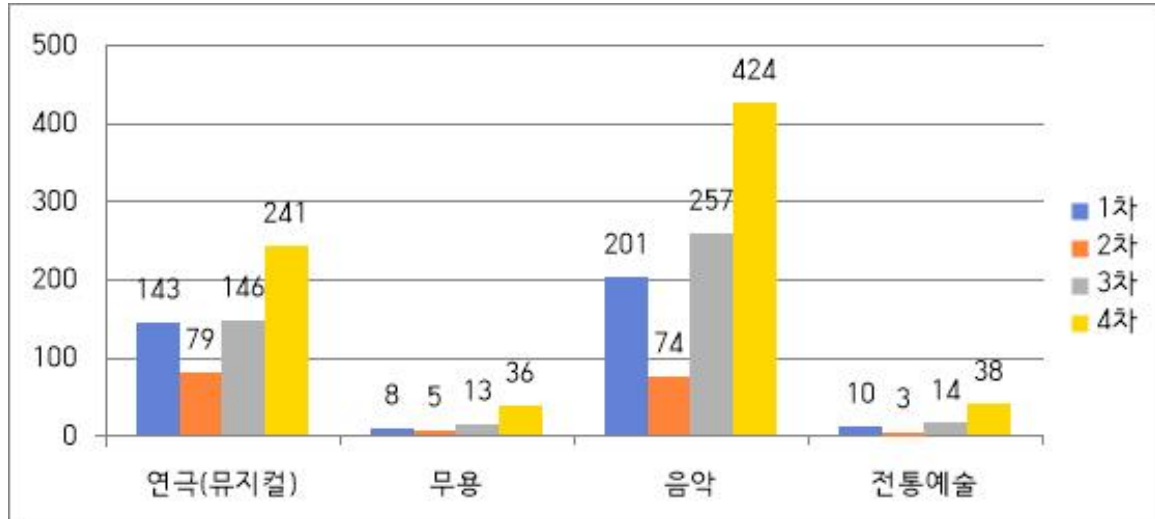
기존에 안내해드렸던 4차 공모 잔여예산은 약 9억 원이었습니다. 지원 가능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등 예술현장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단체에는 지원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별도로 진행한 선정단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1~3차 공모에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 공연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단체의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번 4차 공모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총 10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한 금액 대비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별도 조정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열린정책랩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할 시 선호된 사항들을 본 공모에 맞추어 1순위를 ‘1~3차 공모에서 지원받은 사업(공연)이 없으며 4차 공모에 처음으로 지원받는 단체’, 2순위를 ‘1~3차 공모에서 지원받았던 단체’로 두어 지원금을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2 지원접수 결과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마지막 공모인 4차 공모는 20. 11. 23(월)부터 12. 2(수)까지 총 739건의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원신청액 총합은 약 3,194백만 원으로, 이번 4차 공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 한도(10억 원)의 무려 3배였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공모와 비교하면, 분야별 지원신청건수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공모와 지원대상 기간이 같은 2차 공모를 제외하고는, 점점 더 많은 지원신청이 접수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예술인(단체)이 공연예술 활동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무용과 전통예술 분야가 연극(뮤지컬 포함), 음악 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지원신청 편차는 차년도 사업의 과제로 삼고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결정 과정

지원대상 선정은 44일간의 지원신청서 및 각종 서류 검토와 총 3회의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지원대상의 지원결정액은 다방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1) 지원신청서 및 각종 서류 검토

4차 공모에서는 우선 유형별로 명시되어 있는 필수제출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었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원신청서류인지에 대한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1~3차 공모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받았던 경우인 이체증의 정보가 상이한 경우, 필수서류에 직인 혹은 서명이 누락되어있는 경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당초 4차 공모 공고문 상에서 밝혔듯 별도의 보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기에 제외하였습니다.

2) 지원적격성 심사

1~3차 공모와 동일하게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과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비롯한 세부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예술단체(개인)에서 공연작품을 발표할 때 가장 부담이 큰 대관료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이후의 공연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❶ 예술단체(개인)의 지원자격이 안내된 내용과 충족하는지 여부, ❷ 예술단체(개인)가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해당 공연장에서 실제로 발표한 공연작품인지의 여부, ❸ 예술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니라 대관한 공연장인지의 여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총 4회에 걸쳐서 공모를 진행하며 이전 공모에 제출하였던 서류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었으며, 공모별로 서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미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총739건의 사업 중 총503건이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추진단에서 검증한 해당 사업의 지원필요 금액의 총합은 1,986백만 원으로 잔여예산의 약 2배 정도였습니다.

3) 지원결정액 조정

한정된 잔여예산 내에서 지난 1~3차 공모와 동일하게 최대 90%까지의 규모에 맞추어 지원을 하였을 때 선정할 수 있는 건수를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장르별로 균등하게 잔여예산을 분배하여 지원하는 경우, 최종 선정할 수 있는 건수는 108건이었으며 선정 비율은 2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분야	지원적합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	선정비율
연극	130	13	318,180,000	10%
뮤지컬	24	14	328,770,000	58%
무용	23	23	65,580,000	100%
음악	303	45	319,330,000	15%
전통예술	23	23	36,350,000	100%
합계	503	108	1,068,210,000	21%

이에 열린정책랩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공연) 중 최대한 많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잔여예산 규모에 맞추어 지원결정액을 일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지원심의회의를 통하여 공연작품의 예술성, 공연단체(개인)의 역량,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라는 심사기준에 따라 조정하였으나, 올해에는 예술현장에서 선호하였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단체별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으며, 총503건 중 1순위 ‘4차 공모에 처음 선정된 단체’의 사업(공연)은 382건, 2순위 ‘1~3차 공모에서 이미 지원 받은 단체’의 사업(공연)은 121건이었습니다.

또한 2순위의 단체(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위하여 1~3차 공모의 지원결정액 통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지난 3차례의 공모를 통해 총807개의 단체(개인)에 4,785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선정단체(개인)의 전체 평균 지원결정액은 약 6백만 원이었습니다.

분야	선정건수	총 지원결정액(원)	평균 지원결정액(원)
연극	208	1,720,180,000	9,149,894
뮤지컬	33	1,561,310,000	18,368,353
무용	36	49,080,000	2,230,909
음악	424	1,424,740,000	2,919,549
전통예술	38	29,910,000	1,246,250
합계	739	4,785,220,000	5,929,640

특히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위하여 이전과 다르게 대형 뮤지컬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뮤지컬 분야의 평균 지원결정액은 타 분야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연극 분야 역시 단체의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 전년 대비 2배로 향상됨에 따라 평균 지원액이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단체(개인)별로 편차가 있으나 분야별 평균 지원결정액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분야별 편차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보았습니다.

① 분야별 평균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단체를 2순위 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분야	선정건수	미선정건수	1순위	2순위
연극	116	14	98	18
뮤지컬	18	6	13	5
무용	22	1	20	2
음악	259	44	232	27
전통예술	22	1	19	3
합계	437	66	382	55

② 전체 평균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단체를 2순위 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분야	선정건수	미선정건수	1순위	2순위
연극	112	18	98	14
뮤지컬	14	10	13	1
무용	23	-	20	3
음악	277	26	232	45
전통예술	23	-	19	4
합계	449	54	382	67

이러한 비교표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2순위에 포함할 수 있는 건수가 좀 더 많은 쪽으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확정된 선정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선정건수	1순위	2순위	평균지원액 초과 (2순위 미포함 건수)
연극	116	98	18	14
뮤지컬	18	13	5	6
무용	23	20	3	-
음악	277	232	45	26
전통예술	23	19	4	-
합계	457	382	75	46

부적격단체를 제외한 지원대상 사업 중 최종 선정비율은 90.89%입니다. 이는 앞서 규모에 맞춰 지원할 때의 선정비율 21% 대비 약 4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심의회의를 통해 선정하였던 19년도 공모의 선정비율 73.54% 대비 17.3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지원액은 우선순위별로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잔여예산규모에 맞추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분야	1순위	지원필요금액	71%로 조정	2순위	지원필요금액	53%로 조정
연극	98	562,340,000	398,780,000	18	87,120,000	46,060,000
뮤지컬	13	191,430,000	135,880,000	5	39,360,000	20,830,000
무용	20	50,500,000	35,740,000	3	15,080,000	7,970,000
음악	232	485,730,000	343,690,000	45	104,020,000	54,920,000
전통예술	19	31,380,000	22,180,000	4	4,970,000	2,610,000
합계	382	1,321,380,000	936,270,000	75	250,550,000	132,390,000

이에 총 지원가능금액인 10억 7천만 원으로 최대 지원가능한 규모인 457건의 사업에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순위 사업인 382건에 대하여 936백만 원, 2순위 사업인 75건에 대하여 132백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4 4차 공모에 대한 종합의견

2020년의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총 4차례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1~3차 공모는 총 60억 원 규모의 지원금액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기 집행하여 공연계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했기에 적격여부만 확인된다면 모두 지원하였으나, 이번 4차 공모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여 사업추진단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단의 생각과 운영방식보다 예술현장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어 함께 공모를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기관 최초로 공모 전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을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해당 의견수렴 플랫폼을 통해 보내주신 심사방식, 증빙서류,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의 마지막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예술현장과 함께 하였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원금이 줄어들더라도 더 많은 단체가 함께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사업(공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많은 사업(공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사업추진단은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기타서류에 대하여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제 진행하지 않은 공연 작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공모별로 동일한 공연 작품을 다른 단체명 혹은 서류를 바꾸어가며 지원한 경우 등의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었고, 공익제보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일부 단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어졌습니다.

이에 사업추진단에서는 이러한 극소수의 비양심적인 행위들로 인해 본 사업의 구비서류 종류나, 행정절차가 다시금 복잡해지지 않아야 한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적격성 심사 기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전체 공연계에 지원금이 늦게 집행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4차 공모에서 부정한 지원신청 건수를 포함한 미선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술현장에서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차 공모에는 지난 1~3차 공모보다도 많은 예술단체(개인)가 지원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4차 공모에 지원신청한 총635개의 예술단체(개인) 중 318개의 예술단체(개인)가 본 사업에 처음으로 지원신청해주신 단체(개인)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술현장의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음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연취소, 대관료 미환불 등 공연예술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공감하며, 2021년에도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다 많은 단체가 공연예술창작 및 발표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예술현장의 파트너로써 늘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술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